

# 아시아 춤 문화의 가치와 전망

정은영\* · 최현주\*\*

---

I. 서론	V. 결론
II. 아시아 춤 문화의 정책과 현황	참고문헌
III. 아시아 춤 문화의 가치	Abstract
IV. 아시아 춤 문화의 새로운 전망	

---

## 1. 서론

오늘날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라는 서로 다른 방향 속에서 세계는 종교, 인종, 언어 등에서 공통점을 갖는 몇 개의 문명공동체로 통합하고 있다. 이런 세계화 속에 지역화라는 상이한 현상의 공존과 서양 중심적 사상의 한계가 부딪쳐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동양적 전통의 문화적 가치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sup>1)2)</sup> 인문학 분야에서는 서구식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문명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오히려 일상에서 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변화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공연·영화·음악·드라마·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아시아 간의 교류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이제 ‘하나의 아시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인 배경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과 이를 계기로 떠

---

\* 주저자,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학술연구교수, dancelove3@hanmail.net

1) 이연숙(1999). 국민대토론: 새 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새천년과 뉴커뮤니티 2, pp. 17-18.

2) 권영걸(2000). 공간 16강. 도서출판 국제. p. 190.

오른 아시아문화에 대한 잠재력의 인정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무엇보다 동서양이 활발히 교류되는 현 시점에서 세계 속에 아시아의 문명과 문화를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은 객체인 서양이 아닌 동양의 각국이 나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춤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생하였으며, 특정 시대의 사회나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sup>4)</sup>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있으며 문화권마다 독자적이고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 춤 예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며 전통적인 춤은 물론 현대의 새로운 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분석력을 길러 줄 것이다.

지금까지 춤에 관한 학문은 서구를 중심을 이루어져 왔으며 그들의 시각에서 우리의 춤을 평가하고 분석해 왔다. 이러한 서구적 관점에서의 문화상호주의나 문화우월주의는 더 이상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문화의 다양성 논의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모든 춤을 서구의 기준이 아닌 그 민족의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적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여러 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관점으로 모든 민족과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니며 동등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sup>6)7)</sup> 이를 달리 하면 춤을 통해 그 민족의 본질과 정신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문화의 뿌리를 가늠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이제 아시아의 무용예술가들은 서구적인 가치체계가 지배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문화의 정체성 보존, 이웃 문화에 대한 호기심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시아권 춤 영역의 연구는 보다 확대되어야

---

3) 김국선(2004). 한중일 주거문화에서 본 전통가구 디자인 특성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

4) 김지희(2005).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무용교육. 한국체육철학회지, 13(3), p. 384.

5) 이정연(2008). 다문화사회의 초등무용교육. 『한국체육철학회지』, 16(3), p. 185.

6) 김재리(2003). 초기 무용인류학의 연구관점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최승빈(2005). 춤예술의 존재론적 본성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02.

8) 정은영(2004). 한국 전통춤 체험의 현상학적 접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 모색이며 서구 중심 문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아시아 문화 관련 연구의 영역이 점차 확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시아 춤 문화의 가치와 전망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에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자료 및 정부의 주요정책과 최근 아시아 공연예술교류, 아시아 춤 공연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아시아 춤의 가치와 전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 II. 아시아 춤문화의 정책과 현황

### 1. 정부의 주요 정책

문화와 창의력이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에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이다.<sup>9)</sup> 시간적으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공간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및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를 포괄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개념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서구의 주변에만 머물던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진흥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적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도시 광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토대로 신개념의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부주도 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며, 동시에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우는 매개(hub)의 역할을 하는 문화로 여는 ‘아시아 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

2014년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4대 역

9) 문화체육관광부(20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pp. 3-4.

점 추진과제 중의 첫 번째 사업으로, 광주에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는 문화전당을 조성함으로써 광주를 시발로 하여 전국, 아시아 전체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문화전당은 복합문화시설로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 창조와 소통, 교류의 핵심창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아시아의 문화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시아 문화 조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 2. 아시아 공연예술교류의 확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세계화=서구화'로 도식화 될 수 있는 서구 편향적인 문화침투현상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아시아' 지역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는 신뢰감과정서적인 유대가 전제되었을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신뢰감과 유대감의 구축은 문화예술교류라는 정서적인 부분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sup>10)</sup>

2005년부터 시작된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Asian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 ACPI)'은 한류 확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를 매개로 한 쌍방향 교류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한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기획한 문화 레지던시 사업이다. 문화, 예술, 산업,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아시아 각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국 체류를 지원하면서 관련 분야의 교류와 체험 및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아시아로 분류되거나 상대적으로 문화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었다.<sup>11)</sup>

국가 주도 예술교류의 모범 사례인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은 기존의 국가 주도 예술교류가 가지고 있던 단기적, 계기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예술

---

10) 손경년(20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아시아 공연예술 네트워크. 『아시아 공연예술 포럼』. pp. 15-17.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아시아 문화동반사업 운영 방안 연구.

교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한·중·일의 좁은 카테고리화 서구 지향적 교류에서 벗어나 교류가 희소하던 아시아 지역 및 기타 비주류 지역과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문화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사회저변의 문화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의 문화의식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007년 2월 9일, 광주 문예회관에서 《리아우 RIAU》라는 공연 작품이 시연되었다. 한국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 주최하고 ‘아시아 아트플렉스 아시아 공동창작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시연에는 총 212명의 국내외 초대 관객들과 주요 언론기자들이 참석하여 작품과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연극, 무용, 애니메이션,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혼합된 이 작품은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5개 국가 출신의 연출가, 작가, 배우, 무용수, 안무가, 애니메이터, 비디오 아티스트, 사운드 디자이너 등의 공동창작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 외 민간 차원의 아시아교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용계에서도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춤의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아시아 춤 문화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은 한국과 일본의 특색 있는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2010년에는 한국 22개 단체, 일본 25개 단체가 행사에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 국내 공연으로는 우리 민족성을 대표하는 남사당놀이와 강강술래, 화려한 탈들의 향연이 돋보이는 봉산탈춤을 비롯해 다채로운 단체들이 우리문화를 알리기 위한 무대를 장식하였다. 일본 공연으로는 1300년 동안 일본 규슈의 미야자키현 미사토 초 난고쿠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축제 ‘시와스마쓰리’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 3. 아시아 춤 공연의 활성화

춤의 문화적 교류 현상은 춤의 정의와 본질에 대한 영역을 보다 개방적이고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과 발판을 가져다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예술을 수용하는 진보적인 태도에 의하여 춤의 새로운 양상이 일어나고 춤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up>12)</sup>

12) 신현균(2004). 동·서 무용의 문화적 전유과정과 특성. 『한국체육철학회지』, 12(2), p. 478.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춤 공연은 대표적으로 국립국악원의 아시아문화동반자와 함께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공연 ‘모두 함께 아시아(2008)’이 있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 절기공연 ‘아시아의 한가위 축제(2009)’ 공연을 통해 다채로운 아시아의 춤을 선보였다. 국립부산국악원은 2010년 아시아태평양음악 국제학술회의 개최 기념 특별기획공연 ‘아시아의 몸짓과 소리’를 개최하였다. 이 공연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국 등 5개국의 전통음악과 춤을 감상할 수 있었고, 아시아 각국의 춤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과 체험의 장이 될 워크숍도 마련되었다. 또한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2010)’ 공연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전통무용가들이 자국의 전통춤을 선보여 아시아의 화합과 공존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외 무용단체 및 개인 무용가들 역시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춤 공연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러한 공연들의 활성화로 인하여 아시아 춤의 동향과 학술적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우리 춤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자극이 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춤 공연을 통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의 관계성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III. 아시아 춤 문화의 새로운 가치

#### 1. 학문적 가치

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수단이며 인간의 역사와 함께 있어 온 모든 예술의 시원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또 춤은 언어와 다른 형태의 표현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타문화 유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명백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때로는 문화권 내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up>14)</sup> 이것은 한 문화권

13) 성경린(1997). 『한국전통무용』(일지사). p. 7

14) 치수정(2005). 한국전통춤 기초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

내에 존재하는 개인의 사회적, 예술적인 몸짓이 그 문화구성의 가치 체계와 생각을 가장 본질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문화적 기호 혹은 문화적 코드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춤은 문화의 다양한 현상 중의 하나로서 인류의 생활모습과 행동 양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시각에서 볼 때, 민족이 전승해 오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민족문화의 아름다움을 사회전반에 스며들게 하여 문화체계를 유지시켜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춤은 그 시대에 따라서 형태와 춤의 정신과 의미가 각기 다르며 내포되어 있는 사상과 깊이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춤이 각 민족의 삶과 사상적 근원으로 형성되어 왔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sup>16)</sup>

아직까지 무용학적 관점에서 동양 즉 아시아 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고조되지 않았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과 일본 춤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인도의 춤들이 한국의 무대에서 오르는 일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우리 무용학계는 춤의 연구에 있어 비교무용학적 연구<sup>17)18)19)</sup>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춤과 다른 종족의 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춤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시도이며, 문화적 다양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춤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이를 세계화하고 보편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sup>20)</sup>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춤에 대하여 좀 더 창의적이면서도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춤들의 공통된 특질은 미학적, 실천적 측면에서 근대 이후 동양권에 유입된 서양 춤과의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는 점에서 아시아 춤의 변별가치를 확인케 한다. 또한 아시아의 다양한 춤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춤의 원형과

15) 김말복(2010). 『춤과 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183.

16)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5). 전통공연예술의 세계화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 5

17) 이은희(2003). 한국과 일본의 가면극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한애진(2007). 한국의 궁중학무와 일본의 부가쿠 곤론핫센 비교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19) 한 로(2010). 한국과 중국 춤에 나타난 부채활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강인숙(2003). 일본 카구리춤의 제의성과 예술성 분석: 한국춤과의 비교를 위한 기초작업.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3.

변용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양식에서 보편성 및 고유성을 찾아내며 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다양한 춤들의 연구는 우리 자신과 타 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우리의 민족적 유산에 대한 개인적 주체의식을 고취시키고, 폭넓은 발전과 관용스런 태도와 멋에 대한 근본 자료를 제공하고 각 인종, 종교 문화적 전통들 간에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승인을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민족의 삶과 사상적 근원으로 형성되어진 춤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식시켜줄 것이다. 특히 춤 전공자들에게는 아시아의 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춤의 특성과 미적 고유성을 확연하게 정립할 수 있다는 학문적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양방향적인 현상의 관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여러 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히는 문화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시작 단계로, 학문적인 목적과 함께 파급되는 실제적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역사과목을 하나로 학습하였지만, 현재는 미술, 음악, 무용, 생활사, 경제, 정치, 지역사 등 여러 인접 학과와 연계한 교육방법이 고안되고 있고 동시에 문화유산을 소재로 평화교육, 환경교육, 세계화 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에 기여하는 통합방법론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시아 춤 문화는 통합교육의 방법으로 인성, 세계관, 지역의 깊은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아시아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춤들은 그 안에서 보이는 유사성 연구를 통해 저변 국가와의 교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역사 및 무용사 분야에서의 학술적인 효과도 기대되며,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자료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 2. 사회·문화적 가치와 의미

본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탄생한 무용은 그 나라, 그 지방의 특성과 생활상을 잘 드러낸 그들의 문화적 유산으로 모든 사회의 문화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그 시대나 문화권의 영역을 크게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공통적인 생활양식이나 사



회적 역사적 특질을 나타내어 준다. 무엇보다 문화예술로서의 무용은 미적인 인간을 길러 진실을 알고 행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인간을 존중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의 춤은 해당 국가의 문화 예술적 창조력과 우수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그 국가를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 정신문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 관리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문화 예술 이미지의 관리는 중요하다. 특히 인간 신체의 순수한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춤이 만들어내는 국가적 이미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화시대 아시아의 고유한 춤은 자국의 전통과 얼을 현장에서 연결시켜나가는 살아있는 예술로 그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지키는 가장 확실한 상징이 된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문화의 동질화로 각국의 문화정체성이 훼손과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춤을 바라볼 때 문화예술의 발전적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로서 그 계승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즉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관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아시아 민속춤의 계승 및 회복과 대중화는 현대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춤에 본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의 매개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극단적으로 개인중심적이고 파편화 되어 가는 현대에 있어서 아시아 춤의 회복 및 계승과 대중화를 통해 사라져가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아시아 춤 문화를 통해 우리는 모두를 함께 끌어안을 수 있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서로의 문화, 관습 및 전통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 문화원형으로서의 콘텐츠적 가치

엘리어트의 「전통과 개인의 창조력」(1971)에서는 “전통이란 상당히 넓은 의미의

21) 원은정(2009). 무용문화축제의 사회적 함의.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저절로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원할 때 당신은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우선 역사적 감각과 관련되어 우리는 그것을 아무에게나 나누어줄 수도 없다. 역사적 감각이 하나의 지각이며 과거성 아니라 현재성이다.”라고 전통을 설명하고 있다.<sup>22)</sup>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통문화 중 가장 개성적 특질을 보여주는 것이 전통예술인데, 이는 민족 특유의 미적 개성에 의해 독특한 양식과 기교, 형태와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미적 가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sup>23)</sup>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예술 활동과 유사하다. 문화산업의 성패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예술적·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력(창의성)이 핵심요소라는 의미이며, 흥미롭고 창의적인 소재발굴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오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4)</sup>

‘원형’은 주물(鑄物)의 틀(Form)인 원형(元型, Pattern)과 고유성 및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본디 모양’으로서의 원형(原形, Originality), 그리고 보편의 틀, 공통의 틀을 의미하는 원형(原型, Archetype)의 의미가 담겨 있다. 최근 문화원형 콘텐츠화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선호하는 개념은 바로 원형(原型, Archetype)이며, 보편의 틀 개념이다. 단 하나의 틀만을 상정하지 않고, 시기와 지역에 따라 또다시 변화, 변용되어 생성된 보편 틀, 기본 틀도 원형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문화원형으로 연결되고 있다.<sup>25)</sup>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문화콘텐츠로의 전환이 가능한 요소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산업의 관건은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산업발전에 활용하는 가에 있다. 그러므로 세계인이 감동하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소재가 바로 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인 춤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수한 아시아 무용문화콘텐츠 개발은 타 분야와 융합과 교류

22) 조요한(2003). 『예술철학』(서울: 미술문화). p. 348.

23) 인권한(2003). 『한국전통문화의 현대적 모색』(서울: 태학사), p. 10.

24)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 문화정책백서.

2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6).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 p. 22.

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V. 아시아 춤 문화의 새로운 전망

급속한 정보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화로 이행하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이미 동질적인 문화에 따라서 집단화 또는 블록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화 속의 지역화라는 상이한 공존과 서양 중심적 사상의 한계가 부딪쳐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동양적 전통의 문화적 가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이후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후 대안적 체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양의 문화와 사유체계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며 보다 직접적인 배경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과 이를 계기로 떠오른 아시아문화에 대한 잠재력의 인정이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유네스코에 의한 문화다양성 선언 이후 고유한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약소국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에 대한 문화적인 호기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와 공연예술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서구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아시아' 라는 지역 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 하겠다. 무용계 역시 아시아 여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시아문화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시아 춤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유럽의 안무기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주의를 담은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타문화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세계화를 향한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곧 아시아 춤문화는 신선한 문화적 매력으로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 있으며, 또 국제 문화관광 자원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 간 활발한 문화와 인적 교류의 기회와 체험을 확산하고, 세계를 향해 발신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인프라로서 아시아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연예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춤은 언어적인 소통의 난점이 없다. 때문에 레지던시 및 국가 간 공동제작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또한 모든 아시아의 나라가 전통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춤을 보존하고 있기에 교류를 통한 문화상품 개발에 있어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다양한 아시아 춤의 기획을 시도함에 있어 공연, 답사, 전시 등 여러 가지 전통문화 활용 프로그램과 문화향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이주민 100만 시대를 맞은 다문화 시대에 아시아 춤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에 대한 관심은 향후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타문화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세계화를 향한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곧 아시아 춤문화는 신선한 문화적 매력으로 세계 춤문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국제 문화관광 자원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하는 정책이다. 곧 국가 간, 민족 간 자국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감(共感)을 향한 과정이다. 앞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는 활용 가능한 문화 창조력과 경제력, 민주 정치적 수준과 위상에 걸 맞는 문화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하여 추진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V. 결 론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기저(基底)한 춤 예술은 각양각색의 문화를 잉태해 내었다. 춤은 효과적인 감정 표출과 전달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각 문화속의 종합된 독특한 관습 및 규범들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인간의 내적충동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미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된 전체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자기표현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춤은 인류 역사와 문화와 함께 호흡해온 살아 움직이는 예술로서 우리가 연구

해야 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춤이라는 것을 통해 한 국가의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로써 역사적 자산으로 뿐만 아니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써 활용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춤 문화의 가치와 전망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의 주요정책 및 아시아 공연예술교류와 아시아 춤 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 춤의 가치와 전망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볼 수 있었다.

기대효과로는 첫째, 세계 및 아시아에의 효과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심화, 아시아 춤 문화의 다양성 증진으로 아시아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 추후 지속적인 아시아 춤의 학문적 발달을 통해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국가발전의 효과로 한국의 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의 장기적 문화연구개발 방향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지역발전의 효과로 지역의 춤을 널리 알리어 문화산업발달 및 관광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가치창출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와 우리문화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보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현장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가 포함된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에 지원할 수 있으며 아시아 문화 연구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또 지속가능한 아시아 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춤들의 원형적 춤동작들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창작 춤의 다양한 원천소스로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춤에 대한 지식의 확대는 보다 창의적, 서사적 콘텐츠의 수요층을 자극할 것이고 아울러 다양한 매체기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주요 주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춤 연구는 아시아의 춤으로 시야를 넓혀 아시아적 특징을 표현하는 올바른 지표를 발견하고 계승, 발전 시키어 풍부한 감각과 창조력을 기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결(2000). 『공간 16강』. 서울: 국제.
- 김말복(2010). 『춤과 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성경린(1997). 『한국전통무용』. 서울: 일지사.
- 인권한(2003). 『한국전통문화의 현대적 모색』. 서울: 태학사.
- 조요한(2003). 『예술철학』. 서울: 미술문화.
- 강인숙(2003). 일본 카구라춤의 제의성과 예술성 분석: 한국춤과의 비교를 위한 기초작업.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국선(2004). 한중일 주거문화에서 본 전통가구 디자인 특성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리(2003). 초기 무용인류학의 연구관점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2005).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무용교육. 『한국체육철학회지』, 13(3): 383-392.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손경년(20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아시아 공연예술 네트워크. 『아시아공연예술 포럼』. 15-17.
- 신현군(2004). 동·서 무용의 문화적 전용과정과 특성. 『한국체육철학회지』, 12(2): 475-488.
- 원은정(2009). 무용문화축제의 사회적 함의.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연숙(1999). 국민대토론: 새 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새천년과 뉴커뮤니티 2』.
- 이은희(2003). 한국과 일본의 가면극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덕(2001). 세계화가 한국인의 정체성에 미친영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86-795.
- 이정연(2008). 다문화사회속의 초등무용교육. 『한국체육철학회지』, 16(3): 181-192.
- 정은영(2004). 한국 전통춤 체험의 현상학적 접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수정(2005). 한국전통춤 기초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승빈(2005). 춤예술의 존재론적 본성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로(2010). 한국과 중국 춤에 나타난 부채활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아시아 문화동반사업 운영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5). 전통공연예술의 세계화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6).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애진(2007). 한국의 궁중학무와 일본의 부가쿠 곤론헌센 비교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논문투고일	2012년	2월	15일
심사일		2월	21일
심사완료일		2월	28일

## Abstract

### Value and Prospect of Asian Dance Culture

Jung, Eun-Young\* · Choi, Hyun-Ju\*\*

*Research Professor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of Kyung Hee University*

Now the globalization of culture stands for having mutual exchange as different cultures coexist by having diversity rather than the world sharing one homogeneous culture. Thus, in these times when the nativ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nation is being emphasized, the research activity for encouraging social atmosphere of precisely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Asian culture is adding its importance than any other times in the pa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laced on newly highlighting the value of Asian dance culture at the point when the interest toward diversity of Asian culture is being increased while the field of researches related to Asian culture is gradually being extended and becoming in progress. Now the research in the field of dance in the Asia region must be extended further and be presented with objectives. This would be searching for identity of Asian culture and is a necessary task from the fact that it can be presented as one alternative on western hemisphere based culture. In result, it would be helpful in establishing academic value of Asian dance along with social and economic value and status. Also, various expected results and utilization plans through Asian dance culture have been presented. For its expected results, it would have the far reaching effect of sending Asian dance culture into the world in many-sided aspects. Also, it can prepare a basis for securing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on Asian culture and our culture as well as the identity of our culture. In result, it could be utilized for establishing basic materials and theoretic basis for humanity based promotion of Korean dance by newly highlighting the Asian dance culture.

**keywords:** Asia(아시아), dance(무용, 춤), culture(문화), globalization of culture(문화의 세계화), humanity(인류)

www.kci.go.kr